

## ‘文의 분노’ 대선 판 뒤흔든다

### 뉴스 현장

대선을 27일 앞두고 현직 대통령과 야당 유력 대선 후보가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막판 대선 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집권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여론은 윤 후보의 발언을 ‘검찰발(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전통 지지층은 물론 중도·부동층 표심 결집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부당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두고 “중양지중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척 했다는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돈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격노는 윤 후보가 현 정권을 비판하며 ‘적폐’라는 단어를 쓴 것이 도화선이 됐다.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 정부’로 스스로를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윤 후보의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상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분노는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 선택을 한 배경에 무리한 검찰수사가 결정적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뉴스통신사 교류협력체 ‘이태뉴스통신사기구’(OANA)의 의장사인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서면인터뷰를 한 후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이태뉴스통신사기구 합동취재단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된 서면 인터뷰에서도 “아무리 선거 시기가 하더라도 정치권

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며 윤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

윤석열 “집권 땀 적폐청산 수사”  
문 대통령 “강력한 분노…사과해야”  
대통령·야당 유력후보 정면충돌  
‘노무현 트라우마’ 대선 한복판으로  
이재명 “검찰발 정치보복” 총공세  
靑 출신 의원들 “대통령 지키겠다”

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前)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고리로 여론 대결집에 나섰다. 윤 후보의 발언을 ‘검찰발(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서려는 한편, ‘노무현 정서’를 지렛대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물론 중도·부동층의 표심을 견인, 현재의 ‘경합 열세’ 국면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서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지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인하는 것은 본 일이 없다”며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길 진심으로 권유드린다”고 윤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공화국과 정치보복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에 맞서 3월 9일 대선 승리로 대한

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제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비켜갔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야당 대선 후보 비판과 사과 요구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재경 전북도민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며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 할 수 있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부당한 선거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칙론에 대해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흡입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윤 후보 발언 취지를 곡해해 정치보복 프레임에 씌우려 들더니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전면 등장이 집권의 대선판을 뒤흔든 변수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등판이 선거 막판 여론 대결집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론의 총공세가 오히려 정권심판론을 자극, 야권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오미크론 대 유행 ...광주·전남 3천명 육박·전국 5만명 돌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명 전망

광주·전남에서 연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사상 첫 5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 기록을 넘어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427명, 전남 1495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와 전남은 설 명절 연휴 이후 각각 일일 확진자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지인 등 기존 확진자 접촉이 절반 가량인 655명이며 유증상 검사자도 767명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가족·지인 등 기존 확진자 접촉이 7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증상 411명, 타지역 접촉 139명, 격리 중 136명 등이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전국적으로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4122명으로, 누적 118만5361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4만9567명)보다 4555명 많은 것으로, 역대 처음으로

5만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2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3일(2만2906명)의 2.4배, 2주 전인 지난달 27일(1만4514명)의 3.7배에 달한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에는 전국적으로 하루 최대 36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놨다.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3일째 200명대를 유지하면서 지난 4일엔 257명까지 밀어졌으나, 최근 이를 연속 280명대로 올라섰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해 예방효과가 감소한 고연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내달 이후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망자는 20명 늘어 총 6963명이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대한민국 미래 이끌 유능한 경제 대통령 뽑아야”

### 박영선 민주선대위 디지털위원장

### “4차 산업 선도하는 광주·전남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선회원위원장은 10일 “이번 대선은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4차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3면)

박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선이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나, 아니면 무능한 검찰대통령을 뽑느냐는 구도 속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디지털전환 시

대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전남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에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투자해 놓은 것을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광주·전남이 한반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판세가 초박빙인 만큼 뒷심이 필요한 시기다”면서 “항상 민주당의 막판 승리에 호남 민심의 강한 결집이 있었기에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지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합의·선처 탄원 ... 학동참사 처벌 약해지나 ▶6면

북스 - ‘미식의 인문학’ ▶14·15면

## 바이탈뷰티

#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